


한살림농부이야기

2022년  4월
한살림생산자연합회 소식지 50호

발행인 박용준 편집인 곽현용
편집부 한혁준 김진주
주소 충북 청주시 상당구 단재로 480-2, 3층
문의 043.716.0508
홈페이지 farm.hansalim.or.kr
이메일 farm@hansalim.or.kr
페이스북 facebook.com/hansalimfarmers



전남 함평 천지공동체 달래 생산현장(정성욱 생산자)



겨울을 이겨내고 **제철을 맞은** **한살림 봄철 채소**

추운 겨울을 견디며 야물게 자라난 냉이, 달래, 쑥, 머위 등과 같은 대표적인 한살림 봄철 채소류는 생산자의 땀방울과 봄 향기를 담고, 한살림 소비자의 건강과 행복을 안겨다 주는데 큰 힘이 된다.



봄 향기 가득한 제철 봄 채소 수확이 한창이다.



제철 채소라면 뭐니 뭐니 해도 봄철 채소가 으뜸이다. 겨울이 따뜻해졌다고는 하지만, 초겨울부터 시장이며 마트에서 일찌감치 자리를 차지하고 있는 봄나물에서는 신선한 향기보다는 온실가스 냄새가 폴폴 난다. 한살림에서는 가온 재배를 하지 않기 때문에 양이 적고 생육이 늦지만, 자연 상태와 가까운 조건에서 봄 향기를 담은 겨울 채소들을 정성스럽게 재배하고 있다. 그렇게 겨울철 추위를 이겨내고 아무지게 자란 채소야말로 봄철 입맛을 돋우는 영양분이 가득 담겨있다.

봄을 알리는 대표 작물인 **냉이**는 이맘때쯤이면 벌써 뿌리가 굵어지고 억세진다. 냉이꽃이 하얗게 지천으로 깔리면 본격적인 농사철이 다가온 셈이다. 봄 채소로 시골 동네 아낙들의 가슴을 설레게 하는 채소는 뭐니 뭐니 해도 달래와 썩이다.

달래는 자라던 곳에서 알뿌리가 번식하거나 주아가 땅에 떨어져 나기 때문에 눈썰미 있게 짚해 둔 장소가 아니면 자연 상태에서 달래를 찾기가 쉽지 않다. 한살림에서는 강원 홍천과 충남 아산, 전남 함평에서 비가림하우스 재배를 하여 소비자들에게 공급하고 있다. 친환경 달래는 종구를 구하기 어렵고 재배가 까다롭다. 관행으로 키운 종구로 재배할 경우, 자칫 농약잔류성분이 완전히 사라지지 않고 남아 있을 수 있기 때문에 채종포를 별도로 운영하여 1년 이상 자가재배를 해서 종구를 확보하고 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잔류농약 성분이 낮은 수치라도 검출될 경우, 인증기관에 따라 불가항력적인 사안으로 인정하지 않고 행정처분을 할 수 있으니 주의와 대책 마련이 필요하다.

썩은 특유의 향과 맛뿐만이 아니라 해독작용이 뛰어나 예로부터 약용으로 이용해 왔다. 특히 봄철에 심해지는 미세먼지와 황사를 이겨낼 수 있는 채소로 으뜸이다. 우리나라 땅 어느 척박한 장소에서도 혼자서 잘 자라는 작물이라서인지, 농사로 지친 농부들과 현대인들의 성인병을 해결하는데도 큰 도움이 된다. 공동체 식구들이 월례회의하는 날에는 동네의 들이나 산에 삼삼오오 모여서 썩 뜯는 모습이 그려진다. 찹쌀가루를 섞어 썩 버무리를 한 소쿠리 만들어 공동체 식구들이 함께 먹으면 쫄득한 맛과 진한 향에 회원들 간에 정도 깊어지고 한살림 할 맛도 날 게다. 한살림에서는 전남 함평과 해남에서 생산자들이 정성스럽게 다듬고 선별해서 조합원들에게 공급하고 있다.

입맛이 없을 때 씹새래한 맛으로 입맛을 잡아 주기에는 **머위 나물**이 제격이다. 순, 꽃, 줄기까지 다 사용할 수 있지만 한살림에서는 고송 공룡나라 공동체에서 머위잎을 생산해서 공급하고 있다.

들나물은 예전에는 들판에 깔린 것이 태반일 정도로 많았지만, 요즘에는 많이 볼 수 없어 아쉽다. 한살림에서는 청주에서 생산하고 있는데 친환경 재배라 까다롭기 짝이 없는 작물이다. 특히 병충해에 취약해서 하루라도 관리를 소홀히 하면 재배포 전체가 영향을 받는 작물이고, 생산이 종료되고서도 관리를 잘해야 다음 해에 공급을 할 수 있어 어려움이 많은 작물이다. 아삭아삭한 맛이 일품이고 샐러드용으로 제격이다.

방풍나물은 연중 생산되어 공급되는 작물이지만 봄철에 특히 향과 식감이 좋다. 마지막으로 겨우내 뿌리에 저장되었던 영양분이 가지 끝에 새순으로 맺히는 **두릅**이다. 두릅은 시기를 잘 맞춰서 따내야 한다. 너무 이르면 먹을 것이 없고, 너무 늦으면 질기다. 깊은 산속에서 자연산 두릅을 딸 수도 있지만, 산에 두릅나무를 심어 생산하는 경우가 많아졌다. 문제는 두릅나무를 심어도 잘 자라지 않고 봄철 냉해 피해를 받으면 나무가 고사하여 아예 두릅을 구경하기 어려울 때가 많다. 한살림에 두릅 공급이 잘 안되는 이유이다. 그렇다고 시중에 나오는 일반 두릅을 보면서 한살림은 왜 두릅이 안 나오냐고 따지는 것도 무리다. 왜냐하면, 두릅이라고 판매되는 것 중에는 동남아 등지에서 순이 붙은 가지를 사와 비닐하우스에서 키워 따낸 것이 많기 때문이다. 아쉬운 마음을 달래려면 땅두릅을 이용하면 된다. 땅두릅은 여러해살이풀에 맺히고 미끈한 점액이 있어 식감이 조금 다르지만 쓴 맛이 적고 향이 강하지 않아 누구나 즐길 수 있다. 한 해 농사가 시작되고 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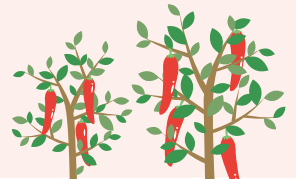
한살림 농부의 바쁜 손길에 소비자의 건강과 행복이 달려 있다. 코로나 팬데믹으로 지친 농부에게 공동체 식구들의 협동과 서로에 대한 섬김의 마음이 큰 힘이 될 것이다.



친환경 노지 고추밭 해충 밀도 낮추기

천적 박사 이기상 박사의 강의자료를 바탕으로 작성

노지 고추 작물에 발생하는 해충은 ① 담배나방, ② 진딧물, ③ 총채벌레, ④ 점박이응애, ⑤ 노린재, ⑥ 가루이 등이다. 이 중에서 담배나방은 고추 과실 속에 들어가 있어 방제가 매우 어렵다. 담배나방과 진딧물 등의 발생 밀도를 생태적 방법으로 줄여내는 방법은 다음과 같다.



고추밭 옆에 옥수수심기

■ 천적 유지식물(Banker plants) 옥수수 개념 이해하기

고추밭 옆에 옥수수는 중요한 천적 유지 식물이다. 담배나방과 진딧물 발생 억제에 중요한 역할을 한다.

옥수수에 기생하는 조명나방 및 진딧물은 고추에 피해를 주지 않지만, 고추에 잘 발생하는 담배나방에 기생하는 알벌이 생겨 천적 유지식물이다.

■ 옥수수는 천적 유지 식물이다.

1. 옥수수 조명 나방



옥수수조명나방 피해, 애벌레와 알, 산란은 난괴형태로 잎 뒷면에 낳는다

■ 옥수수의 중요 해충으로 옥수수 조명나방이 있다. 줄기나 옥수수에 구멍을 내고 상품성을 떨어뜨리거나 생육에 지장을 초래하는 해충이다. 하지만 고추 입장에서는 해충이 아니고 그냥 곤충이다.



알벌에 기생당한 담배나방 알

알벌이 옥수수조명나방알에 기생하고 탈출한 모습

- 이 옥수수 조명나방 알에 기생한 기생벌들이 서식을 할 수 있어서, 천적 유지 식물인 것이다. 기생벌은 알벌류(Trichogramma sp.)들이다.
- 조명나방 알을 통해 번식된 알벌들은 고추밭으로 이동을 하여 담배나방 알에 기생을 한다. 옥수수 조명나방 알이 있으므로 해서 알벌들은 연속성을 갖는다.

2. 옥수수에 발생하는 진딧물

- 옥수수에는 기장테두리진딧물과 옥수수테두리진딧물이 발생한다. (보리에도 마찬가지로) 이 진딧물은 고추의 해충이 아니다. 반대로 고추에 발생하는 복숭아혹진딧물, 목화진딧물은 옥수수에 살 수 없다.
- 진딧물 발생은 옥수수의 수술이 형성되면서 번식이 시작된다. 이 시기는 대부분 6월 중순 이후부터이다. 이때부터 발생한 진딧물은 옥수수가 있는 한 10월 중순까지 이어진다.
- 이 진딧물들 때문에 자연적으로 생기는 천적은 ①무당벌레류 2~3종 ②풀잠자리류 약 3종 ③진디혹파리 ④꽃등애류 약 3종 ⑤기생벌류 약 2종 정도 발생한다.
- 이 천적들은 옥수수에 증식되어 고추밭으로 이동하여 고추의 해충들을 먹이로 살아간다. 결과적으로 고추의 해충 진딧물, 가루이류, 총채벌레류, 담배나방, 기타 나방류, 응애류 등의 해충 밀도가 천적들에 의해 낮아진다.

■ 고추밭 천적 유지식물 연간 관리 방법



천적 유지식물로 보리와 옥수수를 이용한다. 보리는 5월 중순까지 유효하며 뒤를 이어 옥수수가 고추 작기 끝날 때까지 유지될 수 있도록 한다.

1) 보리파종

10월 하순경에 발두렁에 보리 파종을 실시한다. 파종은 발두렁의 유효공간(경사면 등)을 이용하고 파종면적은 최소 길이가 1~2m 정도로 한다, 10m 간격 정도로 하되 정해진 것이 없으니 밭의 여건에 맞추어 파종하면 된다. 유효면적 전체를 파종해도 관계없다.

2) 옥수수 파종 또는 이식

옥수수는 재래종 또는 일반계통 품종을 이용하되 가급적 단옥수수 계통이면 좋다. 진딧물 발생이 잘 된다(사료용은 안됨)

- 고추 아주심기 할 때 동시에 파종하거나 며칠 미리 심도록 한다(1차 파종)
- 2차 파종 또는 이식은 약 2주 후에 실시하며 1차 심은 곳 옆에 한다. 같은 방법으로 약 5~6회까지 실시한다.
- 1차 파종 또는 이식(5월 첫 주 기준)된 옥수수의 수명은 7월 하순이면 끝난다. 고추 작기가 끝날 때까지 옥수수가 있어야 하기 때문에 1차 파종 이후 수명을 고려하여 순차적으로 7월 초~중순까지 파종하거나 이식하는 것이다.
- 옥수수 파종은 완충 식물로 옆 농가의 농약 비산을 미리 방제할 수도 있다.

3) 조명나방, 진딧물 관리

옥수수에 조명나방 및 진딧물이 없을 경우 주위의 옥수수에 감염된 조명나방 알 및 진딧물을 본인 밭에 이식하면 된다.

■ 방제효과

위의 방법을 적용하였을 때 담배나방 발생률을 상당히 줄일 수 있거나 문제 되지 않을 때도 있다. 친환경 농업인들은 옥수수도 먹을 수 있고, 천적 유지식물이 될 수 있고, 농약비산 완충작용 역할도 될 수 있을 것이다.

하지만 자연에 의존하는 방법이므로 효과가 높고 낮음이 분명히 생길 수 있다. 예를 들면, 고추밭 주변 타 농가가 정기적 또는 수시로 약제를 살포할 경우 그 영향으로 천적들이 거의 없어지거나 매우 낮은 밀도로 존재할 수 있다.

2022년 4월 1일 충북북부연합회 사무실에서 국내 천적 농업에 일가견이 있는 이기상 박사의 강의가 있었습니다. 농가의 생산원이 절감을 위하여 친환경 해충관리 기술 보급 등의 주제로 전체 4시간가량 강의를 진행하였고, 강의 내용 중 주요한 내용을 공유합니다. 해당 강의 영상은 한살림생산자연학회 유튜브에 일부공개 강좌로 올릴 예정입니다. ※ 일부 공개 영상 관련 링크는 담당자(주영달 043-716-0508)에게 문의해주시기 바랍니다.



전국청년위원회
나기창 위원장

2022년 한살림생산자 전국청년위원회 활동계획을 소개합니다.

농촌의 인구감소와 고령화의 문제가 농업과 농촌의 가장 큰 위기라는 것은 우리 모두가 알고 있습니다. 하지만 이를 위한 대안 마련은 쉽지 않으며, 해마다 변화하는 기후위기로 인해 농업 현장의 안타까운 목소리도 더해가는 오늘입니다. 전 세계적인 농업위기, 기후위기 속에서 한살림 농업살림 운동의 지속성을 확보하는 것은 우리 모두의 핵심적인 과제이며, 그것은 저희 청년 세대들도 잘 알고 있습니다.

지난 2021년 12월 9일부터 11일까지 제주도에서 청년위원회의 상황을 진단하고 나름의 지혜를 모아 활동 계획을 세웠습니다. 청년생산자의 위상과 역할을 높이기 위한 방안은 무엇인지? 청년생산자가 안정적으로 농사짓고 생활을 꾸려나가기 위해서 필요한 제도와 정책은 무엇인지? 또 청년위원회를 활성화시키기 위해서 어떤 노력을 해야 하는지? 함께 토론하고 논의하는 시간을 가졌습니다. 무엇보다도 문제가 무엇인지 정확히 진단하고 그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 노력해야 할 일들은 무엇인지 고민하였습니다.

청년생산자가 한살림 생산자 조직의 발전과 성장에 힘이 되고 활력 있는 주체로 성장하기 위해서 다음과 같이 2022년을 보내고자 합니다.

청년위원회의 안정적인 조직 운영을 향해서

전국청년위원회 참여 연령이 만 49세 이하로 재편됨에 따라 참여 인원이 적어 지게 되고 자체 역량이 축소될 수밖에 없는 한계상황에 부딪혔습니다. 이 상황을 극복하는 방안으로 올해는 지역을 순회하여 서로 다른 농업현장을 돌아보며 함께 배우고 성장하는 장으로써 **대표자 회의**를 진행합니다. 1월 강원연합회를 시작으로 3월 과산연합회의 지역 청년위원 분들과 만나 서로의 삶을 살펴보고 응원하는 자리를 마련했습니다. 또한 대표자회의의 안정적인 운영과 청년위원회의 차기 지도력을 형성하는 계기를 마련하기 위해 지역 현황에 맞게 **부위원장 제도를 도입**합니다.

스스로 성장하는 청년

전국청년위원회 대표자 회의 전 참여인증, 생산비 조사, 귀농 귀촌과 후계농업 육성, 배정 체계 개선, 기후변화의 대응 등과 같은 핵심 사안에 대해 **교육활동을 병행**함으로써 우리 안의 과제를 스스로 해결할 수 있는 역량을 길러보고자 합니다. 또한 청년위원회의 주관으로 조금이라고 청년 농업인이 자립하는데 도움이 되고자 청년/신규 생산자를 위한 **유기농업 기본 교육** 프로그램을 계획했습니다. 우리가 마주하는 토양으로부터 직접적으로 사용하는 유기자재에 대한 이해와 정책적인 인증제도 그리고 미생물까지 다양한 테마로 상반기/하반기 2차례 청년 생산자를 찾아갑니다.

청년 지원 정책 수립과 역할 수행

'청년생산자 귀농정착 지원 사업'과 '청년생산자 학습조직 육성 사업'을 시행합니다. 이는 전국 청년 위원회가 안정적으로 자리 잡으려면 이를 지원하는 정책이 필요하다는 인식에서 수립된 계획입니다. 이것을 통해서 경제적인 기반이 약한 청년생산자들에게 조금이나마 안정적으로 자리 잡을 수 있는 기회를 제공하고 또 지역 청년위원회의 자발적인 활동을 끌어내는 계기가 되면 좋겠습니다.

우리만의 한살림 문화

전국 청년위원회는 2018년부터 2030청년생산자들의 활동을 조직하고 육성하는 역할을 집중적으로 해왔습니다. 다양한 배경과 동기로 농사를 지으며 살아가는 젊은 청년들이 다양한 삶 속에서 서로에 대한 이해와 유대감을 형성하기 위한 자리를 마련하고자 8월에 **2030분과 교류회**를 개최하고 생산의 영역을 넘어 젊은 **조합원과 2030 그룹 간담회**를 가짐으로써 젊은 세대들이 생각하는 한살림 문화에 대해 이야기하고자 합니다.

생·소하나 운동의 지속

작년 제주도에서 진행한 청년 워크숍에서 코로나19라는 위기 속에서도 한살림은 생산자와 소비자가 대면이든 비대면이든 끊임없이 만나야 하는 운동임을 청년들 스스로 확인하였습니다. 올해 2차례 **청년 오픈 장터**를 통해 소비 조합원들과의 만남을 준비하고 있으며 2차례 **연합농산물위원회와 간담회**를 가짐으로써 급변하는 소비환경을 이해하고, 젊은 생산자들이 겪는 애로사항을 이야기 하는 등 다양한 주제로 지혜를 모으려 합니다.

연대활동을 통한 새로운 모색

한살림 재단과 함께 하는 청년 꾸러미사업과 한살림연합 영상커뮤니케이션팀과 하는 "요즘 생산자"영상 콘텐츠 사업을 시행합니다. 청년 꾸러미 사업은 청년 생산자가 홍보는 물론 규격과 포장, 가격 또한 직접 책정하여 조합원에게 제시하고 조합원들의 소비를 통해 청년 생산자의 안정적인 생활에 조금이나마 도움이 되고자 마련하였습니다.

또한 다양한 계기로 귀농한 청년들로부터 생태적인 삶을 꿈꾸는 청년들, 한살림 운동을 이어받고자 하는 후계농, 반농반X까지, 한살림 tv를 통해 다양한 삶의 모습을 살고 있는 10명의 젊은 생산자를 찾아갑니다.

[2022년 전국청년위원회 일정표]

	1월	2월	3월	4월	5월	6월	7월	8월	9월	10월	11월	12월
대표자회의 및 지도자 교육	●		●		●		●		●		●	워크숍
청년 오픈 마켓						●			●			
청년생산자 농사기본교육				●						●		
청년농업인 생산비조사	연중											
2030청년먹거리 간담회								●				
연합농산물위원회 간담회									●			
청년꾸러미 사업	연중											
"요즘 생산자" 영상콘텐츠 제작	연중											
2030청년생산자 교류회								●				



한살림생산자도 옷되살림운동에 함께 참여합니다.

Q 옷되살림운동이 무엇인가요?

더이상 입지 않는 옷을 모아 판매한 수익금으로 도움이 필요한 곳을 지원하는 운동으로 지속가능한 내일을 위한 자원순환 실천이자 이웃 돌봄을 위한 실천입니다.

한살림에서는 2017년을 시작으로 매해 봄에 진행하고 있으며, 지난해까지 모두 560톤의 옷을 모았습니다.

한살림생산자도 조합원들과 함께 간헐적으로 동참하고 있었으나 2021년부터는 생산자연합회 차원으로 함께 참여하고 있습니다.



Q 어떻게 참여하나요?

지역연합회(권역) 사무국에 옷을 취합하는 비닐을 배포하였습니다. 공동체별로 사무국과 소통하여 비닐을 수령하여 옷을 모아주시면 됩니다.

모아진 옷은 안성물류센터에 생산물품 입고시에 함께 입고하시면 됩니다. 안성물류센터로 물품을 입고하시는 분은 안성물류센터의 담당자(송재호 팀장 : 010-8794-1730)에게 옷을 입고하고 한살림연합 담당자(이세준 : 010-2047-5870)에게 수거한 비닐수량을 공유하면 됩니다.

[택배로도 가능합니다.]

택배 수신 주소 : 경기 안성시 대덕면 안성대로 1526번지 한살림 안성물류센터 3층 옷되살림운동 담당자 앞

택배 관련 문의 연락처 02-6715-9495
택배발송 시 수령인 연락처 010-8794-1730



Q 모은 옷은 어떻게 사용되나요?

함께 모은 옷은 국내 중고의류 수출업체에 판매해 수익금의 50%는 한살림 재단을 통해 파키스탄 알카이르 학교에 전달하여 빈민가 아이들의 학업을 지원하고, 나머지 50%는 옷되살림기금으로 적립됩니다. 또 지역에서 열리는 옷되살림 장터를 통해 판매해 국내 도움이 필요한 이웃을 지원합니다.

Q 옷만 모으나요?

A, 아래 모으는 품목을 확인해주세요.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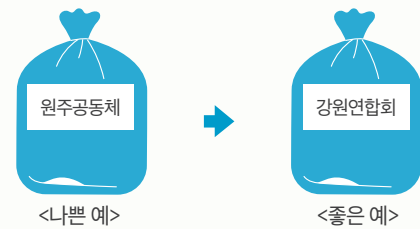
○ 모아요

의류 및 속옷, 가방, 신발, 벨트, 모자, 목도리, 장갑, 양말, 얇은 담요, 이불커버, 매트리스커버, 수건, 커튼

✗ 모으지 않아요

한복 및 전통의상, 에코백, 여행용 캐리어, 하이힐(굽5cm이상), 부츠, 패딩신발, 방한화, 스타킹, 아기용품(아기띠, 천모빌, 손싸개, 걸싸개), 부피가 큰 이불, 신생아 이불, 쿠션, 기타 생활용품(휴대폰, 책, 인형, 가전, 가구 등)

[옷 취합방법]



비닐함에 이면지로 "공동체명"이 아닌 해당 지역의 "연합회(권역)" 이름으로 표기해 넣어주세요.



생산물품과 함께 안성물류센터 입고

Q 얼마나 모으나요?

생산자연합회는 2021년에 1.8톤정도를 모았습니다. 2022년은 6.7톤을 목표로 모으고 있습니다. 많은 참여를 부탁드립니다.

[2022년 한살림전체 목표량 : 115톤]

2022년 3차(3월) 이사회 회의

3월 16일(수), 대면+화상회의로 진행하였으며, 30명 참석으로 3차 이사회 회의를 진행함.

2022년 2월 28일 현재, 회원이 2,283 세대임.

[주요 활동 보고 내용]

주요 회의 보고

- 3월 회장단-사무국장단 연석회의 결과를 보고함.

위원회 보고

- 여성생산자 핵심일꾼연수 결과, 1차 전국청년위원회 대표자회의 계획에 대해 보고함.

각 부분별 보고

- 생산지원부문에서 생산관련회의(잡곡생산관련 회의, 버대표자회의, 사과작목모임 운영회의, 사과 생산관련회의, 1차 자주기준위원회, 한우 생산관련회의), 안전성관리(2월 유기농자재 행정처분 내용, 출하전 검사 결과, 물품 안전성 관련 사고현황, 중점관리 공동체 점검 및 교육계획), 참여인증 관련 보고, 생산출하관리 전산화 관련 진행 내용을 보고함.
↳, 진상 2호 관련하여 벼작목모임을 중심으로 교육계획을 수립하기로 함.
- 정책기획부문에서 생·소 협업매장 현황, 유기농마케팅센터 현황을 보고함.

공유사항

- 공유1. 한고랑나눔운동 돌봄용 쌀 공급계획
- 공유2. 2022년 한고랑나눔운동 확대 및 물류지원 안내
- 공유3. 생산비 조사 실행(안) 공유
↳, 이사회 차원에서 대표 품목을 선정해 생산비 조사에 참여하기로 함.
- 공유4. 생산관리 실무자회의 진행 계획

- 공유5. 부여 딸기 미인증 수급을 진행하지 못한 경위 보고
- 공유6. 2022년 옷되살림운동 현황 및 2022년 목표량
- 공유7. 2022년 소식지 발행주기 검토 계획
↳, 지역조직의 의견을 수렴하여 4월 이사회에서 확정하기로 함.
- 공유8. 2022년 각종 지원사업 시행 계획
- 공유9. 4월 교육 및 연수계획
- 공유10. 강원도 산불피해 지원 모금 계획
↳, 이사회 차원에서 모금에 참여하기로 함.
- 공유11. 농산물 안전관리 및 사고처리에 관한 지침 개정 주요내용

가공생산연합회 보고

- 가공생산연합회는 홈페이지 개설 내용, 정기총회 결과, 연포장재(비닐) 구매 결집 설문조사, 가공생산지 에너지 사용 및 가공부산물 현황조사, 2022년 옷되살림운동 계획을 보고함.

한살림연합/사업연합 주요 보고

- 한살림연합은 이사회 결과(정책기획위원회 논의보고, 총회 의안 논의, 총회 일정), 기후위기 활동계획, 언론 및 업계동향(선거 관련 정책, 포장재 관련 이슈)을 보고함.
- 한살림사업연합은 2월 전월동월대비 -0.2% 증감, 80만 조합원 규모 달성, 코로나19 영향 감소 추세, 리드타임단축 관련 준비계획, 참여인증 및 괴산 세계유기농산업엑스포 참여 계획을 보고함.

[의결안건]

제1호 안건 회원 가입 승인의 건

제안 내용 경남연합회 너나들이공동체 김소영 생산자 외 6세대의 회원 가입 승인을 요청함.

[경남연합회] 너나들이공동체 김소영, 이백용, 전경진, 황미경
영광 이음공동체 이은경, 신원재(이담인)
해남 참솔공동체 김 산

결정 내용 원안대로 승인함.

제2호 안건 한살림조직 회의 및 위원회 참여 명단 검토의 건

제안 내용 2022년 한살림조직의 회의 및 위원회에 대한 참여명단에 대한 승인을 요청함.

결정 내용 원안대로 승인하며 명단은 아래와 같음

[한살림연합]

구분	명칭	참가자 명단
상설위원회	정책기획위원회	곽현용
	연수원운영위원회	박용준
	생산안전기금 운영위원회	류지용, 김홍열, 최근태, 곽현용, 김일수

[한살림사업연합]

구분	명칭	참가자 명단
상설위원회	자주기준위원회	오봉록, 임종래, 김필성, 김상동
	참여인증심의위원회	박호철, 전민철, 김세진, 김상동
	가공사업추진위원회	지완선, 곽현용, 백기욱
운영회의	가격안정기금 위원회	조종백, 김봉순, 이보학, 김상동
	가격결정심의회의	서정훈, 김용옥, 최병찬, 김상동
	한우수급안정기금운영위원회	김종희, 오연섭, 이강수, 주영달

제3호 안건 출자금 조성계획 승인의 건

제안 내용 한살림연합(사업연합)의 신규자본 조성(전산시스템개발, 온라인물류센터 건립)에 따른 분담금에 필요한 자본(약 40억 원)을 조성하기 위해 아래와 같이 출자금을 조성할 것을 제안함.

- 출자금 조성 비율
 - 1차 농산물 생산자는 출하 금액의 0.5%
 - 가공품 생산자는 출하 금액의 0.2%
 - 축산물 생산자는 출하금액의 0.04%
- 출자금 조성 기간 : 2022년~2026년(5년간)
- 출자금 조성법인 : 신규법인(주식회사 형태로 설립 예정)
- 출자금 조성시기 : 신규법인 설립 및 사업연합 전산개발이 완료된 시점부터

결정 내용 원안대로 승인함



2022년 한고랑나눔운동은 더 많은 마음을 모아 진행합니다.

한고랑나눔운동은 지역과 도시의 먹을거리 돌봄사업과 함께하는 먹을거리 나눔운동입니다. 지난해 한살림서울·고양파주와 시범사업을 진행한데 이어서 올해도 지역생협의 돌봄활동팀을 돕고자 하는 우리 생산자들의 다양한 참여가 이어지고 있습니다. 앞으로 생산조직의 다양한 참여를 기대합니다.

▶ 1월 제주연합회 감귤 공급 사례

설날을 며칠 앞둔 1월말 제주연합회(회장 김성길)에서 한살림서울 관악지부로 감귤 10kg/20박스를 전달했습니다. 물품을 전달받은 이월녀(분회 감사)님께서 “여러 어려운 세상사 속에서 자칫 더 소외감을 느끼실 분들에게 한 알의 꿀이 세밀의 스산한 마음을 녹여 드릴 수 있으리라 확신합니다”라는 감사의 인사를 전해왔습니다.

▶ 2월 제주연합회 당근 공급 사례

제주연합회 귀농돌봄농장을 운영하는 이정섭 사무국장님께서 농장에서 수확한 당근 10kg/5박스를 한살림서울과 고양파주 돌봄활동팀으로 전달했습니다.

▶ 3월 돌봄용 쌀 공급 시작!

3월부터 생협의 돌봄활동에 필요한 쌀을 공급하고 있습니다. 이번 쌀 후원은 한살림에 쌀을 공급하고 있는 생산지의 제안으로 시작되었습니다.(참여법인: 아산 푸른들(대표 지완선), 흥성 뫼내뜰(대표 이계형), 괴산 칠성유기농(대표 배상수), 산청 황매산(대표 이상일))

먼저 생협으로부터 수요 신청을 받은 결과 한살림서울을 비롯한 12개 생협의 51개 돌봄활동팀이 신청을 하였고 필요량은 연간 3,443kg이었습니다. 이에 대해 쌀 가공법인들은 생협의 다양한 활동을 존중하여 신청한 모든 활동팀을

지원하기로 결정하였습니다. 신청된 쌀은 3월부터 12월까지 매달 초에 한살림 물류를 통하여 지정한 한살림매장으로 공급이 되고, 생협의 돌봄활동팀은 밥이나 간식으로 조리를 하여 먹을거리 돌봄활동을 하게 됩니다.

[3월 쌀 공급후에 보내온 지역생협 돌봄활동팀의 댓글]

- 강진옥(서울) “쌀생산자님들께서 큰맘 내주셔서 생협의 먹을거리 돌봄활동이 올해는 탄력을 받아 더 잘 할 것 같아요. 한살림물류를 통해 매장에서 편리하게 받을 수 있는 것도 정말 감사합니다”
- 전결화(서울) 귀한 쌀, 지역에서 따뜻한 밥으로 보답하겠습니다.
- 구기훈(남서울) 쌀 어제 잘 받았습니!! 친절하게 개별포장 및 박스포장까지 해주셨더라고요~감사합니다^^
- 박미희(서서울) 서서울도 잘 받았습니. 감사합니.
- 이혜선(북서울) 북서울 잘 받았습니^^ 고맙습니~
- 이지영(서울경인지부) 서울 경인지부도 잘 받았습니. 나중에 활동 사진나오면 공유드리겠습니.
- 박경희(고양파주) 고양파주도 잘 받았습니. 감사합니.
- 최성임(강원영동) 강원영동 잘받았습니~감사합니^^
- 송지은(충주제천) 정성스럽게 준비해 주신 쌀, 지역에서 귀하게 쓰겠습니다. 감사합니.
- 김인숙(제주) 한살림제주 한고랑나눔먹을거리 돌봄 쌀 잘 받았습니. 쌀도정처에서 마음을 내주어 올해 지역안에서 돌봄활동을 진행하게 되어 너무 감사드립니다. 잘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고맙습니^^

한고랑나눔운동으로 보내온

제주 당근에 빠진 아이들



한살림서울 서서울지부 식생활교육활동가 대표
최 성 희

“혹시 식생활 강사단에 당근이 필요하지 않으세요~?” 돌봄을 담당하는 활동가로부터 전화를 받았습니다. “당근이요..?” 흠... 선뜻 생각이 나지 않았습니. 한고랑나눔운동의 당근은 왠지 더 시혜적이고 이타적인 곳에 쓰여야 할 것 같았습니. [돌봄: 돌보다의 명사. 사람에게 관심을 가지고 보살피는 일] 한살림 생명운동인 살림에서 시작하여 돌봄으로 확장된 지금 건강하고 동등한 삶을 위한 돌봄을 새롭게 조망해보는 것도 의미 있겠다 싶었습니. 식생활교육활동에서 돌봄의 실천적 방법에 대한 모색을 하자!! 거창한 담론은 이렇게 시작되었습니.

제주에서 건너온 당근을 냉장고에 모셔두고 활동 팀장에게 지부 내 식생활교육이 가능한 곳이 있는지 문의를 드렸습니. 그리고 이어진 준비과정, 강사를 정하고 교육계획안을 작성하고 레시피를 만들고 재료를 준비하였습니. 광명지역아동센터는 코로나로 식교육을 못한 지 2년이 되었다고 알려 주셨습니.

드디어 광명지역아동센터 아이들과 만나는 날! “안녕하세요~ 오늘은 멀리 제주도에서 계신 한살림 생산자님께서 여러분에게 보내주신 채소로 맛있는 이야기를 하려고 합니. 맛은 우리 몸의 다섯 가지 감각을 통하여 느끼는데 그것을 오감이라고 합니.” 뽀짝 나타나 미소 띤 얼굴로 이야기하는 낯선 선생에게 보이는 반응은 역시 냉담입니. 그리고 이어진 아이들과의 밀당~ 관심 밖이거나 원하지 않는 주제를 아이들에게 전달하는 일은 교육적 스킬보다 노련한 관계 기술이 필요합니. 식생활교육은 더 이상 가르치는 교육이 아니라 경험하고 돌보고 살리는 교육이어야 하기 때문입니.

음식을 먹을 때 다섯 가지의 감각을 어떻게 사용하는지 이야기하였습니. 건강한 땅에서 정성으로 길러진 당근은 입에 넣지 않고도 울퉁불퉁 생명력이 느껴지는 모양, 선명한 색, 넘실대는 향, 탄탄하게 전해지는 느낌으로 맛을 느낄 수 있음을 알게 되었습니. 그리고 실제로 당근을 입에 넣고 감각에 집중하며 맛을 보았습니. 단맛이 나고, 당근 맛이 난다고 말하고 짠맛도 느껴진다고 합니. 그래서 우리는 앞으로 음식을 먹을 때 오감을 활용한 맛보기 3단계 즉 먹기 전, 먹는 중, 먹은 후를 거치면서 다양한 감각을 활용해 먹을 것을 다짐하였습니. 감각에 집중한다는 것은 내가 좋아하는 맛을 알아채고 나의 몸을 돌보는 행위가

며 자연과의 관계를 회복하는 일입니. 잼을 만들기 위해 당근을 썰고 조청에 졸이며 맛의 차이와 변화를 경험합니. 우리는 바게트에 완성된 당근 잼을 발라 접시에 담고 각자 흠뻑 즐겼습니. 온전히 당근에 빠진 아이들은 당근 잼에 호응하였는데 그건 알면 좋아하는 맛의 이치입니.

건강한 땅에서 귀하게 길러진 당근을 통해 아이들과 만나 다양한 감각을 활용하여 맛을 느낄 수 있는 경험을 할 수 있도록 도움 주신 모든 생산자님과 관계자분들께 감사드립니다.



글쓴이(최성희)는 26년 동안 조합원으로 참여하고 한살림서울 서서울지부 식생활교육활동가 대표로 3년 동안 활동하고 있습니다. 뒤늦게 한살림의 생명사상에 흠뻑 빠져 음식과 책을 매개로 생태와 사람의 관계를 회복하는 일에 정진하고 있습니다.



자랑스러운 이름 “한살림 농부”

경북연합회 상주 햇살아래공동체
강 미 령 생산자



저희는 경북 상주에서 사과 농사를 짓고 있는 귀농 8년 차 한살림 청년농부입니다. 저희 부부는 결혼과 동시에 귀농을 결심했고 ‘한살림 농부’ 선배이신 어머니, 아버님 뒤를 이어가기로 했습니다.

지금 저희는 삼둥이와 함께 ‘삼둥이 농장’을 운영하고 있고 작년까진 사과가 주품목이었지만 **올해부터는 사인머스켓도 수확을 시작한답니다.**

저희가 한살림농사를 짓기로 마음먹었을 때 주위에선 ‘친환경농사는 망할게 뻔한 농사인데 그걸 왜 짓냐고?’, ‘집에 돈 많은가 보다?’ 등 우려와 반대의 목소리가 컸었습니다. 그럼에도 한살림농사여야만 했던 건 자연을 지키며 안전한 먹거리를 생산하고 생산자와 소비자가 주체가 되는 그동안 꿈꿔왔던 이상적인 시스템이었기 때문입니다.

요즘 7살, 5살, 4살 된 삼둥이들이 “커서 어른이 되면 어떤 사람이 될 거야?”라고 물으면 큰아이는 과학자가 되어 과원 일을 돕는 로봇을 만들겠다고 하고 둘째랑 막내는 엄마, 아빠처럼 사과나무 키우고 풀도 키우는 멋진 사람이 될 거라고 합니다.

‘한살림농부’가 되려면 얼마나 많은 유혹을 물리치고 얼마나 힘든 길을 외롭게 걸어야 하는지 알 리가 없는 삼둥이들은 엄마, 아빠가 과원 일을 하는 게 마냥 좋은가 봅니다. 그도 그럴 것이 과원에 초록빛이 물들기 시작하면 곳곳을 누비며 풀과 들꽃, 곤충들을 관찰하며 노는 게 제일 좋은 삼둥이들에겐 과원만큼 재미있는 놀이터가 또 없을 겁니다.

먼 훗날 아이들이 커서 ‘**엄마, 아빠는 왜 한살림농부가 되었어?**’라고 물으면 ‘**지금 너희가 보고 있는 풀 한 포기 나무 한 그루를 지켜내기 위해서였어**’ 라고 자랑스럽게 답할 수 있었으면 참 좋겠습니다.

올해도 건강하고 맛있는 사과 농사를 짓기 위해 요즘 분주한 나날을 보내고 있지만 ‘한살림농부’라서 참 자랑스럽고 결과보다는 과정을 더 소중히 여기고 기다려주시는 소비자분들이 계셔서 힘이 난답니다.



Goods, 소비자에게 한 걸음 더

가공생산연합회
강 두 호 실무자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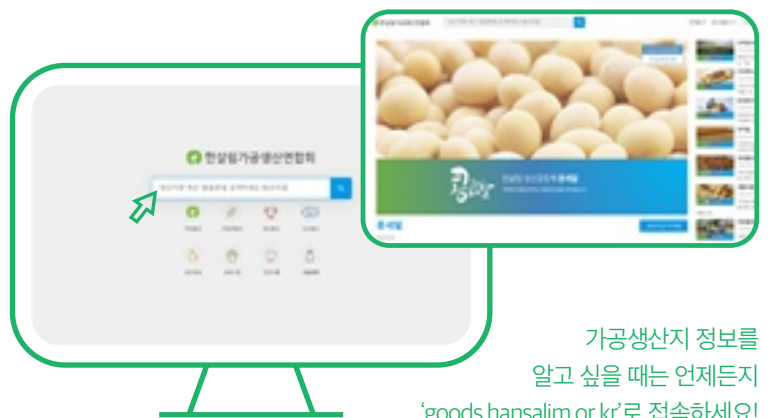
한살림가공생산연합회 홈페이지 오픈

가공생산연합회는 생산지의 현황과 물품 정보를 전달하고자 2021년 3월부터 산지 정보 PPT를 제작하였습니다. 한땀 한땀 모았던 생산지 정보를 기초로 홈페이지를 개발하였고 올해 3월 오픈하였습니다.

이는 한살림 가공생산지와 가공품이 가지는 특별함과 우수성을 널리 알려내기 위한 생산자의 노력입니다. 국내산 친환경 가공품은 소비자와 함께 완성될 수 있음을 알기에 소비자와 끊임없이 소통하고 상호작용하고자 하는 생산자의 진심입니다. 위드코로나 시대에 온라인 간담회 같은 비대면 행사와 각종 조합원 활동에 널리 이용되기를 기대하고 있습니다.

홈페이지 주소에 포함된 물품이라는 뜻을 가진 ‘goods’는 좋은 물품을 생산하는 가공생산자의 마음과 그 물품을 ‘좋아요!’하는 소비자의 마음을 담았습니다.

가공생산연합회는 산지 정보 외에도 생산지 인터뷰, 생산지 동영상 등 다양한 콘텐츠를 지속적으로 업로드할 예정입니다. 모든 소비자에게 한살림 물품의 우수함을 알리기 위해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가공생산지 정보를
알고 싶을 때는 언제든지
‘goods.hansalim.or.kr’로 접속하세요!